

# 요약

---

## 서울시민 교통부문 탄소배출 특성 다각도로 파악

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기후변화를 급속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감축 노력이 진행 중이다. 특히,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%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은 주요 감축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. 이 연구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2006년, 2016년에 수행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탄소배출량 특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.

## 20세 이상 개인별 탄소배출량 10년간 46% 감소

20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한정하여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특성을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량은 2006년 2,285g/일에서 2016년 1,232g/일로 46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성별, 차량소유 여부,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변화율 검토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탄소배출량 감소율이 높았으며 남성 중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한편, 탄소배출량 상위 20%의 시민이 전체 탄소배출량의 74.3%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는 2006년 67.9%보다 더 높아진 수치로 탄소배출의 편중화 현상이 지난 10년 동안 더 심해졌음을 시사한다.

## 교통수요관리 정책 지속 추진해 감소추세 유지

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그동안 추진된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. 또한, 고탄소 배출군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더욱 강도 높은 정책의 추진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